

작품 내용

제 목	99번의 실패는 저작물이 아니었다
내 용	2019년 겨울, 나는 화장품 연구소의 저울 앞에 있었다. 0.01그램까지 읽히는 저울이었다. 그 앞에서 내가 하던 일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이었다. 섞이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안다. 그런데 크림은 물과 기름으로 만든다. 두 액체가 서로 밀어내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성분을 유화제라고 부른다. 유화제의 종류와 양, 넣는 순서, 섞을 때의 온도와 교반 속도. 이 조합을 처방이라고 한다. 내가 맡은 건 칸나비디올을 넣은 크림이었다. 해외 뉴스에서 그 원료의 가능성을 먼저 읽고 제안했던 과제였으니 애착이 있었다. 문제는 안정화였다. 만들면 그럴듯했다. 그런데 사흘 뒤 열어 보면 표면에 얇은 기름층이 떠 있었다. 냉장과 상온을 번갈아 건디게 하는 시험에서는 더 처참했다. 배합비를 바꾸고 다시 만들었다. 유화제를 늘리면 분리는 잡히는데 피부에 무겁게 남았다. 줄이면 다시 떠올랐다. 순서를 바꾸고, 온도를 두 도씩 내리고, 교반 시간을 삼십 초씩 조정했다. 그 겨울에 내가 버린 비커가 구슬구 개였다. 백 번째가 버텼다. 4주가 지나도 표면이 매끈했다. 나는 그 처방을 실험 노트에 옮겨 적었다. 성분과 함량, 투입 순서, 온도 곡선. 반듯하게 적고 나서 선배에게 물었다. 이건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선배는 특허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왜냐고 물었더니, 배합비는 아이디어라서 그렇다고 했다. 그날 처음 알았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표현만 보호한다. 그러니까 내가 녀 달 동안 만든 것은 법이 보기에 아이디어였다. 반면 그 처방을 설명하려고 내가 급하게 쓴 보고서 문장들은 저작물이었다. 특허도 되지 않았다. 선행 조사에서 비슷한 계열의 배합이 이미 나와 있었다. 신규성이 없다는 뜻이었다. 내가 겨울 내내 좁혀 간 좁은 길은 이미 누군가 지나간 길이었고, 나는 그 사실을 녀 달 뒤에 알았다. 출원은 접했다. 그래서 백 번의 실험은 저작권도 특허도 남기지 못했다. 남은 것은 노트 한 권이었다. 그 노트도 회사 자산이었다. 퇴사하던 날 나는 내 손으로 쓴 그 노트를 서랍에 두고 나왔다. 한동안 그게 억울했다. 나는 문장을 쓰려고 밤을 새운 게 아니었다. 크림이 분리되지 않게 하려고 새웠다. 그런데 지켜지는 쪽은 문장이었다.

억울함이 풀린 건 몇 해 뒤였다. 만약 유화의 원리에 저작권이 있었다면 나는 첫 번째 비커도 씻지 못했을 것이다. 물과 기름을 어떻게 붙잡는지를 누군가 독점하고 있었다면, 백 번의 실험은 시작조차 못 했다. 아이디어를 열어 두는 규칙은 내 구십구 번을 버린 규칙이 아니었다. 내 백 번째 실험을 가능하게 한 규칙이었다.

저작권은 그 자체로 유화제 같은 것이었다. 창작을 지키려는 힘과 널리 쓰이게 하려는 힘은 서로 밀어낸다. 저작권법은 그 둘이 분리되지 않게 붙잡는 배합이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제형이 깨진다. 문제는 배합의 전제가 흔들릴 때 생긴다.

지금 나는 실험실에 없다. 생성형 AI 사용법을 알려 주는 영상을 만든다. 지난봄, 다른 채널에서 낯익은 영상을 봤다. 목소리는 기계음이었고 문장은 내 것과 하나도 같지 않았다. 그런데 세 가지 예시를 꺼내는 순서가 같았다. 초보자가 반드시 틀리는 지점에서 멈추는 자리가 같았고, 끝에 남기는 질문이 같았다.

그 순서는 내가 열 번 넘게 다시 녹화하면서 찾아낸 것이었다. 앞의 두 예시를 바꾸면 사람들이 중간에 나간다는 걸 조회 그래프를 보고 알았다. 그건 내 콘텐츠의 처방이었다.

조회수는 내 영상보다 높았다. 댓글에는 정리가 깔끔하다는 칭찬이 달려 있었다. 원래 어디서 온 순서인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물을 이유도 없었다. 그 영상 어디에도 참고한 것이 적혀 있지 않았으니까.

신고하려고 규정을 읽었고, 2019년에 배운 문장을 다시 만났다.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는다. 구성과 순서와 흐름은 아이디어였다. 표현은 전부 달랐다.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규칙이, 이번에는 나를 지켜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알았다. 아이디어를 열어 두어도 괜찮았던 건 하나의 전제 때문이었다. 표현을 옮기려면 사람의 시간이 든다는 전제. 남의 화풍을 익히려면 십 년이 걸리고, 남의 구성을 가져가려면 자기 손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 그 시간이 완충재였다.

지금 그 완충재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화가들이 화풍을 지켜 달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화풍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특정 작가의 이름을 프롬프트에 적어 넣는 방식은 부정경쟁이나 저작권 인격권 문제로 다뤄질 수 있지만, 화풍 자체는 여전히 열린 영역이다. 화풍을 보호 대상에 넣자는 논의가 오가고, 미술계는 화풍이 작가가 내린 창작적 선택의 총합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안다. 어떤 선을 남기고 어떤 색을 버렸는지가 쌍

여 굳은 것. 내 노트에 적힌 것도 그것이었다. 무엇을 넣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구십구 번 버렸느냐. 나는 그 요구를 이해한다. 내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백 번이 있다.

이해하면서도, 답이 보호의 확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화풍에 권리를 붙이면 다음 사람이 붓을 들 수 없다. 유화제를 계속 넣으면 크림은 굳는다. 배합에는 상한이 있다.

다른 길은 표시다. 올해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생성물 표시 의무가 생겼다. 눈에 보이는 표시와 메타데이터 같은 보이지 않는 표시를 함께 쓰라는 규정이다. 계도기간이 1년 넘게 주어져 과태료는 내년부터 매겨진다. 나는 이 규정을 규제라기보다 성분표라고 읽는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밝히라는 요구.

그래서 두 가지를 앞당겼다. 계도기간을 다 쓰지 않기로 했다.

첫째, 내 영상에 AI 사용 구간을 먼저 표시했다. 목소리를 합성한 부분, 이미지를 생성한 부분을 화면 아래에 적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적었다.

둘째, 설명란에 참고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이 설명 방식을 어느 글에서 배웠고, 이 비유를 누구에게서 얻었는지. 여덟 줄쯤 된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내 것이 이렇게 적었나 싶어서. 지금은 그 여덟 줄이 그 영상에서 가장 정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화장품 성분표에는 규칙이 있다. 많이 들어간 것을 먼저 적는다. 순서를 지키게 법이 정해 두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는 것이 쓰는 사람의 권리라서다. 창작물에는 그런 표가 없다. 불일 의무도 대개 없다.

백 번의 실험은 지금도 저작물이 아니다. 그 처방으로 만들어진 크림이 어느 선반에 남아 있다 해도 성분표에 내 이름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제 그 표를 먼저 읽는 사람이 되었고, 내 것에도 붙이는 사람이 되었다.

많이 들어간 것을 먼저 적는다. 가장 많이 빌린 것부터.